바른 앎이 바른 삶을 보장한다

현불논단



지승도 교수
한국항공대 소프트웨어학과

SNS에 퍼지는 명언(?)이 있다. 세상에 진짜 없는 것 세 가지는? 첫째 '공짜', 둘째 '비밀', 셋째 '정답'이란다. 얼핏 고개가 끄떡여진다. 그러나 현자들의 앎은 상식과는 달라 보인다.

첫째, 공짜 없다? 누구나 수긍할 경험적 법칙이며, 윤리와 도덕의 근간이다. 하지만 양자역학자는 아니란다. 세상은 정말로 공짜란다. 정해진 바 없는 것이 실상 진리이기에, 상상하는 무엇이든 가능하단다. 일체유심조이기에 화엄 세계는 그림의 떡이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공짜라고 불교는 말한다. 공짜라면 선악이 무슨 소용인가? 아니다. 윤리와 도덕의 부정이 아니다. 역으로 철저한 윤리와 도덕, 선행의 실천을 거쳐야만 공짜의 진리에 들어선다. 진리와 하나가 된 자만이 공짜의 복을 누린다는 것이다.

둘째, 비밀 없다? 이 또한 경험적 철칙이다. 드러날 것은 드러나고야 만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전부 진실이라 믿기에 숨겨진 비밀은 없다고 여긴다. 하지만 풀지 못한 엄청난 비밀이 있다. 몸과 마음 너머의 비밀, 우주와 의식 너머의 비밀, 윤회와 열반 너머의 비밀... 현대 과학이 불가사의라고 치부한 바, '중첩', '불확정성', '불완전성' 등 언어와 현상 이면의 실상을 알아야 한다. 불교적 용어를 빌자면, '무아'와 '공성'이라는 실상 진리를 통찰해야 한다. 생사를 해결해 줄 유일한 비밀이기 때문이다.

세상 어지럽고, 삶은 고달펴
부처님 법서 바른 앎 찾아야
알면 자유, 모르면 고통이다

셋째, 정답 없다? 정해진 바 없는 것이 진리이기에 정답 없다? 정답이 없으니까 몰라도 된다? 그냥 무심하게 무념으로 살면 된다? 아니다. 콩심은 데 콩 나는 것은 분명한 정답이다. 물론 콩의 속성이 무자성(無自性)이라는 것 또한 정답이다. 비록 정해진 바 없는 무자성이지만, 인과는 분명히 작용한다. 왜 정답이 있어 보이나? 인과법 때문이다. 윤회가 성립되는 이유다. 왜 정답이 없어 보이나? 무자성 때문이다. 열반이 성립되는 이유다. 그러니 대충 살아선 안된다. 중도의 비밀을 알아야만 정답이라는 장애마저 벗어난다.

세상은 욕망으로 치달린다. 기술은 눈부시지만, 정신은 끝없이 타락하고 있다. 해가 바뀌어도 세상은 어지럽고, 삶은 고달프다. 저마다 살 궁리에 여념 없지만, 백약이 무효다. 삶은 앎에서 비롯된다. 바른 앎만이 바른 삶을 보장한다. 공짜 없고, 비밀 없고, 정답 없음은 생활의 지혜일지는 몰라도, 궁극적 지혜는 아니다. 붓다의 가르침에서 바른 앎을 찾아야 한다. 반드시 깨달아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합리적 사유만으로도 삶의 고달픈 짐을 덜어낼 수 있다. 나를 따라다니며 괴롭히고, 병들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본질적 고통이 한낱 무지에서 비롯된 그림자였음을 알기만 하여도 자유다.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알면 자유, 모르면 고통이다.

영화 〈레옹〉에서 소녀 마틸다는 묻는다. "사는 게 힘든가요? 아니면 어릴 때만 그런가요?"

레옹은 한숨짓는다. "언제나 힘들지!"

부처님이 곁에 계셨으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앎이 없는 삶은 미혹이요, 삶을 떠난 앎 또한 미혹이다."

트럼프 2기 상호주의 결과는 '공멸'

세간과 출세간



박수호 교수
중앙승가대 불교사회학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하 트럼프)이 취임하고 2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의 후폭풍이 매우 거세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트럼프의 정책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이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동맹국과의 전통적인 협력 관계도 재고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한다. 이러한 입장은 주로 외교와 경제 분야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을 종결시키려는 트럼프의 개입은 상당히 노골적이다. 특히 우크라이나를 향하는 트럼프의 시선은 탐욕의 화신처럼 보인다. 정상회담에서 보기 드문 외교적 결례를 연출했던 미국이 군사 원조 및 정보 공유 중단 등으로 우크라이나를 압박한 끝에 광물 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은 보호세를 요구하는 조직폭력배나 악덕 고리대금업자를 연상시킨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이 초래하는 파급효과도 외교정책 못지않다. 미국에 대한 불공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만큼 미국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상호관세 정책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의 행동에 맞서 상대국도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내게 된다. 유사한 사례를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 이미 경험했고, 현재도 유사한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여파는 단순히 세계 무역 질서의 혼란으로 그치지 않는다.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의 일상적인 경제생활도 위협을 받게 된다. 최근 급격히 치솟은 미국의 달걀 가격 폭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런 외신들을 접하게 되면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총성 없는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있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우크라 향한 트럼프, 조폭 같아
일방적 희생 요구하는 상호주의
종국엔 미국 및 세계 모두 손해

사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내세우는 상호관세 정책은 상호주의의 가면을 쓴 미국 우선주의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상대국들의 저항은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의 일방적 승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양측 모두의 손해로 이어질 것이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연기의 법칙이 여기에도 관철된다는 점을 통찰하면, 이미 지구적 차원으로 확장된 국제분업 체계 속에서 상대국들의 손해와 저발전이 미국에도 여파를 행사할 것이라는 예상은 당연해 보인다.

상호주의는 연기적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지만, 그것의 실제적 내용이 어떤 방향성을 갖느냐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만들어 낸다. 대등한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상호주의는 모두의 발전과 상생으로 이어지겠지만,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어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상호주의는 궁극적으로 양측 모두의 파멸로 귀결된다.

따라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상호주의의 길을 찾아야 한다. 자비심에 근거한 약자에 대한 배려가 상생의 상호주의로 나아가는 첫걸음일 것이다. 그러나 이 배려가 강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 강자를 향한 존중과 약자에 대한 배려가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강자와 약자의 관계를 중도의 관점에서 성찰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시대적 맥락을 고려할 때, 이러한 고민은 인간만의 이익이 아니라 뭇 생명의 이익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社 說

봉선사 명상체험센터 기공에 부쳐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는 3월 18일 경내 일원에서 '명상체험센터 기공식'을 봉행했다. 봉선사 명상체험센터는 교구본사가 추진하는 '1호 명상센터'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종단 차원에서 건립 예정인 선명상센터가 있지만, 본사가 직접 나서 명상센터를 건립하며 선명상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기 남양주 진접읍 부평리 249번지에 들어설 봉선사 명상체험센터는 총면적 3만905㎡에 연면적 4215㎡로 지하 1층, 지상 2층, 최고높이 9.26m 규모로 지어진다. 불교명상관, 웰컴센터, 명상마당, 참선동, 명상 미디어영상관, 관리동 등으로 들어선다.

지난해 연말 시작된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한국사회는 혼란의 한가운데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선명상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신문화 진흥을 도모하는 '선명상 대중화' 운동은 대승불교의 자리이타(自利利他) 정신과 맞닿는다.

포교·전법은 한국불교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키워드다. 선명상은 현대사회에서 포교·전법을 이끌 중요한 방편이다. 선명상 대중화를 위해 종단적 역량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봉선사의 명상체험센터 기공은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 선명상 대중화를 위한 봉선사의 명상체험센터 불사가 원만 회향되길 기대한다.

출가자 감소, 범불교적 대응을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회원종단 29개 현황을 파악한 결과, 사찰과 승려(정사) 수가 10년 전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에 비해 사찰 수는 4590곳이 감소(-31.4%)했으며, 승려(정사)수는 1만 3734명 감소(-39.11%)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수행자의 감소다. 비율로만 보면 감소세가 40%에 육박한다. '출가 절벽'이라는 파고(波高)가 점차가 거세지고 있는 모양새다. 전체 출가자가 주니 종단별 사찰의 수가 주는 것은 필연적 결과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종단협 소속 종단 사찰 수는 2014년 1만 4742개에서 2024년 1만 152개로 4590곳 감소했고, 등기사찰은 2014년 3496곳에서 2024년 3451곳으로 45곳 감소했다. 승려(정사)수는 2014년 3만 5117명에서 2024년 2만 1383명으로 1만 3734명이 줄었다.

출가자 감소 문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기론됐던 현안이다. 한국불교 최대 종단인 조계종의 경우 2012년 212명에 달했던 한해 출가자 수가 2023년 84명으로 줄었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사회의 고질적 사회문제인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것이다. 애초 자녀를 낳지 않으니 출가자원이 주는 것이다. 또한 가족 전승을 비롯해 어린이-청소년-대학생·청년으로 이어졌던 계층포교가 붕괴되며 벌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최근 불교는 젊은이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으며, 전법·포교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출가하거나, 미래 세대 출가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 이는 모든 종단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 주 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염불시스템 시설 상담하세요!
본사는 20여 년간 설악 신흥사와 남해의 토굴까지 2천 5백여 사찰 염불시설을 한 베테랑업체!



소리 공학박사 박 공 희 대표 직접 방문 설명

본사는 최신 디지털시설로 기존 법당시설과 소리비교시 장난감 차이를 시설전 반드시 확인!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 귀 사찰 법당시설의 1/2 가격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50평 가능 / 방생용 겸용 (스탠드 포함)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사찰 재 전문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장엄한 음성으로 화답!